

광주·전남 대학 올해도 신입생 미달

전남대 38명·전남대 14명 등 100여명 내외...미달율은 개선 학령 인구 감소로 예정된 수순...지역 대학들 자구 노력 필요

학령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대다수가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전남대와 조선대 등 주요 대학들의 미달율은 전년도의 2021학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2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의 2022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4251명이지만 4213명이 등록을 마쳤다. 최종 등록률은 99.11%로 지난해 96.67%보다 소폭 올랐지만 정원에서 38명이 미달했다.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응용생물학과, 인공지능학부에서 1명씩 총 3명이 미달했다. 여수캠퍼스는 해양바이오식품학과 등 10

개 학과의 정원 35명이 미달됐다.

조선대는 신입생 4385명을 모집해 4370명이 최종 등록했다. 10개 학과에서 14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등록률은 99.7%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아시아언어문화학과와 글로벌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학과, 작업치료학과, 경제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산업공학과, 전기공학과, 영어교육과, 휴먼융합서비스학과 등 9개 학과에서 1명씩 미달됐으며 공연예술무용과에서는 6명이 부족했다.

송원대는 700명 모집에 699명이 등록했으며, 치위생학과에서만 1명이 미달됐고 호남대는 신입생 정원 1566명에 1494명이 등록, 충원율은 95.4%다.

광주여대는 969명 모집, 94.7%에 해당하는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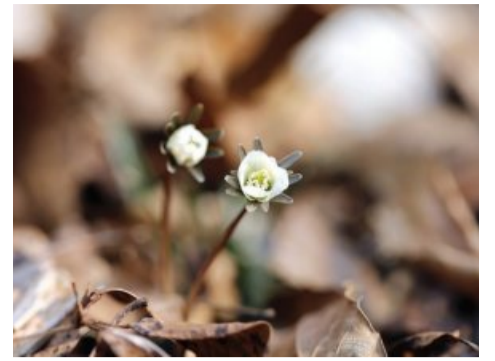
명이 등록했다. 자율전공학부·작업치료학과·AI융합학과 등 6개 학과가 정원 외 모집을 비롯해 63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동신대는 1566명을 모집해 1455명이 등록했다. 11개 학과 111명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충원율은 92.9%로 집계됐다.

목포대는 올해 신입생 1694명 모집에 나서 1438명이 등록을 마쳤다. 40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다. 순천대는 1664명 신입생 모집에 91.4%인 1521명이 등록을 마쳤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 정원 대비 입학 연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대의 정원 미달은 예정된 수순일 뿐"이라며 "지역대학이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없이는 존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봄 옷 입는 무등산

복수초·변산바람꽃 개화...큰산개구리 산란 확인

무등산 생태계가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2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왼쪽)와 변산바람꽃(오른쪽)의 개화, 큰산개구리의 산란이 확인됐다.

복수초는 지난 2월 8일경, 변산바람꽃은 2월 16일 개화하면서 봄이 왔음을 알렸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는 지난해 포근한 날씨의 영향으로 일찍 개화했지만, 올해의 경우 평년(2월 중순)과 비슷한 시기에 개화했다.

아울러 국내 서식하는 양서류 가운데 산란 시기가 가장 빠른 큰산개구리는 산간 또는 하천에서 서식하다가 봄이 되면 저습지 또는 논 등에서 산란하는데, 무등산 큰산개구리는 지난 2월 20일 평두메습지에서 산란이 확인됐다.

최관수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을 견디고 봄이 찾아온 무등산처럼 국민들의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무등산이 국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5·18 왜곡 소극적 대응 아쉽다

지난해 26건 수사·의뢰·82건 방통위 제보...인터넷 등서 여전히 기승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과 SNS 등에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14건, 6월 12건 등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 26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해 중복 게시물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18 왜곡처벌법이라고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월 5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5·18 기념재단과 함께 역사 왜곡·폄훼, 게시물, 가짜뉴스 등 82건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보하기도 했다. 30건은 삭제됐으며 52건은 현재 심의 중이다. 광주시는 교육청, 기념재단, 민주연론

시민연합, 전남대 5·18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응 태스크포스와 함께 사이버 대응, 법률·제도, 교육·연구 등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광주시의 이 같은 행정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년째 허위사실 유포 대응책을 시행중이지만,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정보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기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518' 등을 검색어로 입력한 결과, 5·18 북한군 사망자수 등 왜곡된 정보를 담은 글과 사진물 등이 검색됐다.

/박진수 기자 lucky@kwangju.co.kr

오월정신 계승 '2030 메이 펠로우 2기' 모집

1년간 2400만원 활동 지원금

광주지역 오월정신 단체들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2030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일 (사)광주마당·(사)운상원기념사업회·518now에 따르면 오월정신을 실천하는 2030청년을 선정해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2022년 '2기 메이 펠로우' 를 모집한다.

'메이 펠로우'는 5·18민주항쟁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세대들이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통해 광주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시작했다.

지원신청은 광주지역 2030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활동소개서와 활동계획서를 4월 16일까지 5-18now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메이펠로우로 선정된 2030 청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2021년 '메이 펠로우 1기'에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연극인 장도국(33)씨를 선정해 활동지원금을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알려줄게 2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원생들에게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를 나눠주며 사용법을 설명해 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미크론 확산'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 확대

광주교육청, 채용공고 절차 간소화...현장 행정업무 경감 기대

광주교육청이 2022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해소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확대 운영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공고 절차 또한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업무도 경감한다.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력풀은 대체 인력 채용 때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

한 시스템이다.

시 교육청은 인력풀 활성화를 위해 등재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가 아닌 개인이 직접 이메일로 등재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로 적격 여부를 조회해 승인한다. 등재 방법 확대를 통한 절차 개선으로 개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등재 신청서류는 매월 1-7일 사이 시교육청에서 받아 적격여부를 조회한다. 해당 자료는 2년 동안 공개해 필요한 학교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